

제16호·2016년 7월 6일

미래전략연구본부 | 국제물류연구실
총괄·감수 | 이 성 우 실장

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포'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물류이슈

극동러시아 통관관련 애로사항 개선동향

- 외국 기업들이 극동러시아에 진출 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 중 하나가 통관으로 최근 극동러시아의 통관 관련 애로사항이 계속 제기되어옴
- 러시아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 해외기업들의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방법을 도입 또는 제시하고 있음
- 이번 물류이슈에서는 기존에 외국기업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가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하고자함

기존 외국기업들의 극동러시아 통관 애로사항

- 극동러시아 세관을 통한 수출시 복잡한 서류 절차
 - 통관 시 세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많음
 - 법인 정관, 법인 설립 결정서, 법인 등록 증명서, 통계청 인증서, 세무서 등록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 9개를 기본으로 추가로 더 요구할 수 있음)
- 긴 통관소요 시간 및 고비용
 - 아래 <국가별 통관 환경>표를 보면 러시아에서 수출입 때 소요되는 비용이 다른 국가들 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같은 프로세스임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와 러시아를 비교 시 네덜란드는 수출입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
- 통관 시 원본서류 요구
 - 러시아가 최종목적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관 시 원본서류를 요구함
- 화물에 대한 엄격한 화물 검사 등
 - 콜드체인 화물의 경우 화물에 대한 전수검사 실시로 훼손 발생
 - 정기화물도 예외 없이 엄격한 검사 실시



<국가별 통관 환경>

	러시아	네덜란드	싱가포르	중국	한국
수출필요서류(개수)	9	4	4	7	3
수출소요시간(시간)	139	1	16	37	15
수출소요비용 (달러/컨테이너)	1,625	0	372	692	196
수입필요서류(개수)	10	4	4	9	3
수입소요시간(시간)	139	1	36	126	7
수입소요비용 (달러/컨테이너)	1,625	0	257	940	342
무역분야 순위	170/188	1/188	41/188	96/188	31/188

자료: World Bank Group, Doing Business 2016, KMI 재구성

극동러시아 통관 관련 세관의 주요 개정 사항

- 러시아 연방 내 화물 및 운반수단에 대한 모든 세관절차의 자동화시스템 도입 예정
 - 해운, 트럭, 철도, 항공을 통해 운송되는 화물의 출·도착 정보, 세관신고, 보세통관, 임시 보관 등의 업무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진행할 예정임
 - 이 시스템은 인터넷에 기반을 두어 세관당국과 무역업자들이 서로 정보를 전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그 중 전자세관신고가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어 세관신고를 온라인(On-Line) 상으로 할 수 있으며 세관당국의 통관허가서도 온라인상으로 고지됨
- 전자화물통관 도입 예정
 - 전자화물통관은 신고서 자동등록 단계와 화물 출고 결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이미 부분적으로 극동항만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 신고서 자동등록은 2013년에 도입되어 총 1만 건이 자동 등록되었으며, 올해만 4천 건이 등록됨
 - 자동출고 시스템은 올해 4월부터 극동지역에서 실시되었으며 올해 말 자동출고 시스템을 보다 더 확대 적용할 계획임
- 부처 간 전자협력 시스템 도입
 - 세관신고 및 통관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목록을 간소화하기 위해 부처 간 전자협력 시스템을 도입함
 - 위 시스템 도입을 통해 실제로 서면 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 수가 감소하였음
 - 신고자 자격을 입증해야하는 계약서, 그 외 서류, 관세납입증명서, B/L, 기술요건적합서 등을 제출할 필요 없음



- 인터넷을 통한 사전정보제출 방식 도입
 - 현재까지는 자동차 및 철도 운송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해운 및 항공운송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임
- 해상운송의 경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해양항(Potal Sea Port)' 사이트 운영 (<http://sea.customs.ru>)
 - 극동 지역에는 총 28곳의 해양국경통과검문소가 있으며, 대부분의 화물이 해상을 통해 운송되기 때문에 통합 정보 제공을 위해 '포털 해양항'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 이 포털은 기업 및 정부기관이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사이트에 업로드 된 서류들은 모든 정부기관에서 열람이 가능함
 - 원스톱 서비스에 따라 신고자가 한번만 서류를 제출하면 통관절차가 진행되며 전자 상으로 신고 및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음
 - 또한 이 포털을 통한 통관 시, 세관원이 실사를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검토한 후 허가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으며 현재 입항 시 60% 정도, 출항 시 80% 정도가 실사 없이 통관 처리되고 있음

통과화물 주요사항 및 처리시간 단축방안

<2013-2016년 국제교통회랑 물동량 >

№	Name of departure customs office	Name of arrival customs office	Type of transport	Number of transit declarations				Gross weight, ton				Country of departure	Country of destination
				2013	2014	2015	2016 (4 month)	2013	2014	2015	2016 (4 month)		
International Transport Corridor Primorye-2													
1	Customs point Khasan	Customs point Sea port Zarubino	railway	0	6	10	0	0	112.4	187.2	0	China	Republic of Korea
2	Customs point Khasan	Customs point Sea port Zarubino	automobile	277	226	142	50	3 282.8	2 557.2	1 982.3	849.1	China	Republic of Korea
3	Custom point Sea port Zarubino	Customs point Khasan	railway	0	0	2	0	0	0	16.3	0	Republic of Korea	China
4	Customs point Sea port Zarubino	Customs point Khasan	automobile	191	236	145	93	2 006.9	2 567.4	1 650.1	1 112.2	Republic of Korea	China
5	Customs point Sea port Slavyanka	Customs point Khasan	automobile	0	1	0	0	0	2.4	0	0	USA	China
6	Customs point Khasan	Customs point Sea port Slavyanka	automobile	0	0	2	0	0	0	27.8	0	China	China
International Transport Coridor Primorye-1													
1	Customs point Pogranichnyi	Customs point Sea port Vostochnyi	railway	0	1	116	0	0	26	5047.7	0	China	China
2	Customs point Pogranichnyi	Customs point Sea port Vostochnyi	railway	0	2	0	50	0	43.5	0	1 237.4	China	China, Japan
3	Customs point Sea port Zarubino	Customs point Pogranichnyi	automobile	0	0	1	0	0	0	0.19	0	Japan	China
4	Customs point Sea port Vladivostok	Customs point Pogranichnyi	automobile	0	0	3	0	0	0	55.3	0	Republic of Korea	China
5	Pervomaisky customs point	Customs point Pogranichnyi	automobile	0	0	23	0	0	0	506.9	0	Republic of Korea	China
Transit cargo transportation between Vladivostok and Khasan customs													
1	Customs point Sea port Vladivostok	Customs point Khasan	automobile	1	0	21	0	0.25	0	375.8	0	Japan, Republic of Korea	China
2	Pervomaisky customs point	Customs point Khasan	automobile	0	0	33	2	0	0	459.7	41.2	Republic of Korea	China

자료: 제6차 극동포럼 발표자료



- 최근 블라디보스토크항을 통해 크라스키노세관을 지나 동북3성으로 가거나 역방향으로 오는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음
- 2015년 기준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지나 중국으로 가는 통과화물의 신고건 수는 약 500건이며, 물동량은 1만 톤 이상임
- 항만에서 주로 철도, 트럭킹으로 환적하여 최종목적지(동북3성)까지 운송됨
- 통과화물의 경우, 보세통관 절차를 통해 세관을 통과할 수 있음
- 보세통관을 위해서는 통과운송신고서를 추가로 필요로 하며 이 서류에는 운송장, 운송관련 서류, 거래 관련 서류 등의 정보도 기입해야함
- 또한 통과화물의 경우 통과화물로의 분류를 위해 화물의 최종 수취인을 기입한 B/L의 제출이 필요함
- 통과화물의 주요 지연 원인으로는 잘못된 서류 제출, 위생검역 관리, 동식물 검역 등임
- 통과화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전자신고방식으로 세관신고가 이루어져야하며, 통과화물이 어느 노선을 이용하여 통과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정보 제출이 필요함
- 현재 연해주 지역에서 러-중을 연결하는 국제교통회랑인 프리모리예-1, 프리모리예-2 지역의 세관이 시범적으로 전자신고 방식을 도입 중에 있으며, 이 시범사업 이행 결과 통과화물 통관 신고서 제출에서 화물 반출까지 걸린 시간은 20분 미만이었음

한-러 통관 협력을 위한 정부차원 노력

- 한-러 간 통관업무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 2010년 체결된 '한-러 정보 공유 협정'은 양국 관세청의 정보공유를 통해 화물 통관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체결됨
- 문제해결 및 연 목표 수립을 위한 양국 관세청장의 정기회의 진행
- 실무를 위한 양국 법집행의 협력 노력
- 러시아 세관전문가에게 한국세관서비스 노하우 교육

시사점

- 러시아 특수성
- 러시아는 사회주의식 업무방식이 아직까지 남아있어 러시아만의 고유한 업무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 같은 문제도 다른 나라와 바라보는 시각 및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들은 러시아만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을 통한 국적기업 혜택 취득
 - 러시아가 최근 발표한 선도개발구역이나 자유항을 이용한 통관혜택을 국적기업이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함
 - 국적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세금혜택, 기업부담금 인하, 인프라 설치, 부동산 임대료 특혜, 무관세 통관 절차 적용 등이 있음
 - 우리나라 기업들은 러시아가 외국기업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사업에 유리한 혜택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음
- 기존에 국내 기업들이 러시아 통관 관련하여 겪고 있는 많은 애로사항들을 러시아 정부도 잘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관점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해결이 조속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제6차 극동포럼 발표자료,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이하림 연구원
051-797-4758, harimyi@kmi.re.kr

물류이슈

극동개발공사, 극동 항만의 부두사업권 위임받을 가능성 있어

- 극동개발부가 러시아연방정부에 선도개발구역 법령수정을 제안함
 - 주요 수정내용은 선도개발구역 내 항구 부두시설 감독 관리의 전반적인 권리를 극동개발공사에 위임하겠다는 내용임
 - 갈루쉬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위 제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협약은 이미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 힘이 실리고 있으며 올 가을 국회의 최종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극동러시아 지역에 있는 수산항 부두의 75% 이상, 냉동창고는 40% 이상이 매우 노후화 되어 투자가 꼭 필요함
 - 그래서 수산항 부두사업 총괄을 러시아 교통부 산하에 있는 항만청에 수차례 제안된 적이 있으나 항만청이 선도개발구역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극동개발부가 밝힘
- 이러한 배경에서 극동개발공사가 부두 투자 사업유치에 대한 가능성을 극동개발부에 제안함
 - 현재 부두관련 투자는 워낙 낙후된 항만인프라로 인해 3.6억 루블 규모의 냉동창고 단지 건설 투자프로젝트 1개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진행되고 있음
 - 하지만 이 프로젝트도 진행이 잘 되고 있진 않음
 - 극동바이칼지역개발펀드가 1.2억 루블을 투자하려고 했으나 냉동창고 건설 시공사와 러시아 수산자원청 간의 창고 임대기간 연장 및 소유권 이전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투자가 불발되고 프로젝트는 계속 제자리 상태임
 - 극동개발부는 이러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사업권을 초기에 극동개발공사에 위임하여 사업을 진행하려는 의도로 보임

자료: <http://tass.ru/ekonomika/3397150>(검색일: 2016년 7월 5일)

이하림 연구원

051-797-4758, harimyi@kmi.re.kr

제11회 해외물류사업 설명회

일 시 | 2016년 7월 11일(월), 14:00~17:00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지하2층)

모시는 글

"제11회 해외물류사업 설명회"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해양수산부와 함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돌파하고 우리 물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설명회에는 국내 해운·항만·물류 및 관계기업들을 대상으로 극동러시아와 중국의 콜드체인 물류시장을 소개하고, 인도네시아 및 인도의 SEZ 및 항만 인프라 개발·운영사업을 소개됩니다.

또한, 투자 관심기업 모집 및 관심지역 조사와 중점지역 재검토 및 관계기관 공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설명회에 꼭 참석하셔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김성귀

프로그램

사회 | KMI 신수용 전문연구원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10	등록 및 자료 배포	
개회행사		
14:10~14:15	개회사	임진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
14:15~14:20	환영사	박경철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1세션 콜드체인 물류시장		
14:20~14:50	극동러시아 수산물 물류센터 진출사업	장홍석 KMI 박사
14:50~15:10	한중 FTA 연계 중국 콜드체인시장 진출방안	이성우 KMI 실장
15:10~15:20	질의응답	
15:20~15:30	커피 브레이크	
2세션 고성장 물류시장		
15:30~16:10	인도네시아 비통 등 SEZ 활용 모델	Mr. 에노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16:10~16:40	인도 Dighi 항만 개발 및 운영사업	이성우 KMI 실장
16:40~17:00	종합 정리	

* 통역제공 예정 / 세부 프로그램 변동 가능

참가신청 및 문의

- 기 한 : 7월 10일(일)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joohye915@kmi.re.kr)
- 문 의 처 :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송주미 전문연구원 Tel. 051-797-4773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김주혜 연구원 Tel. 051-797-4779

오시는 길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대한상공회의소

(도로명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TEL : 02-6050-3114

지하철 이용안내

- 지하철 2호선 : 시청역 9번 출구 삼성본관방향 5분거리
- 지하철 1호선 : 서울역 3번 출구 5분거리

※ 주차권을 별도로 배포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